

## 차별화를 추구하는 대구경북지회



중에 있다. 이런 친목행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참가하는 회원들의 반응 역시 대단하다고 한다.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5월 18일, 지회장배 골프대회(대구 팔공 컨트리클럽)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연이어 7월 4일 '평록회장배 골프대회(포항 오션힐 컨트리클럽)'에서는 굵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여해(우승: 가온감정 장영록 회원, 74타) 또 한번 회원간의 단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단합은 최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감정평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2006년 12월 현재 법인지사 21개소, 개인사무소 12개소 등 총 165명의 소속회원을 두고 있다. 출범 당시(5개법인만이 소재)부터 회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업계현안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타 지회보다 회원간 단합은 최고이다. 전통적으로 시장규모에 비해 소속인원수가 많은 이유로 회원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지회운영위원회 및 매년 3월 정기총회를 통해 지회현안에 대해 의결하고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철저한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 친목 포인트는 평록회

매월 열리는 골프모임인 평록회(회원수 약 35명)는 회원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그 외 등산, 바둑, 낚시 등 Informal Group의 형성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3월경에는 신입지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등반대회도 추진

### 강력하고 든든한 대구경북지회

최근 대구지역에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회원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회에서는 각 법인의 지사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조치하고 있으며(기존 재건축사업등과 관련하여 이미 24건을 지회에서 추천하였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수수료할인 및 기형적 조직에 의한 감정업무처리 등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상태이다.

업계환경이 나날이 열악해지는 이 시기에 감정평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발 맞춰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추세로 대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지회에 협회 및 건설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

## 孝天에서 김진영(나라법인) 평가사를 만나다

한 가족 내 다섯 명의 어머니가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 지금, 다섯 명이냐 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감정평가사가 있다. 부모는 물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시는 것. 마음을 다해 다섯 명의 어머니를 모시는 김진영 감정평가사를 만나보자.

###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진영 감정평가사는 행복하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세상을 한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그는 현재 다섯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효천(孝天)', 개포동 주택들이 들어선 골목에 유난히 눈에 띄는 현판이다. 집으로 들어서니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위하여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목재로 낸 길과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세심한 배려다.

집안으로 들어가니 노인들이 계시는 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풍기는 향기와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이 눈에 들어온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 김진영 평가사는 이 어르신들을 '어머니'라 부른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어르신들을 모시되었다는 그의 말에서 효심이 묻어난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연고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모시는 이 분들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정말 어머니이니까요"라고 말하는 그의 미소는 천사다.

시와나 조금 외진 곳이면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은 절약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말한다. "제가 서울에 어른들을 모시는 이유는 시골에는 병원이 멀거든요."

### 그에게 진정한 '효'를 묻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몸도 자신의 가정도 아닌 남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그에게서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

'효천(孝天)에 계시던 96세 되신 어머니가 2년전에 돌아가시고 지난 4월에 또 한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삶이란 고단하지만 고단한 삶을 편하게 마감하는 것 그 또한 행복이겠지요!' ▲

### 천사의 미소를 가진 그

효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월 사백만 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들어가는데, 10여 명의 친구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수입은 전부 효천에 투자한다.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부인의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는 김진영 평가사는 그래도 행복하다. 건강한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편하게 보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의 고집과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사시던 분들을 모시다 보니 약간의 어려움도 때로는 있다. 하지만 상주하는 복지사의 정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해결해 준다고 한다.

효천은 효도를 목적으로 전통적 문화와 공동체적문화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른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김진영 평가사는 대학에 편입해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장애우나 불우한 청소년 등 주변에 어려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령화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삶의 마지막에 편하게 모시는 것이 도리라